

양육비·청년 정책 지원 대폭 늘린다

무안, 2022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일자리·복지 등 6개 분야 45개 사업

무안군이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최근 발표했다.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7건) ▲복지·보건·여성(17건) ▲농림·수산·축산(8건) ▲관광·문화·교육(4건) ▲교통·건설·환경(6건) ▲일반행정·세제(3건) 등 6개 분야 45개 사업이다.

특히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는 점이 주목된다.

신규 또는 3년 이내 창업한 무안 거주 청년(만19~39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특성화고와 대학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학생에게 지역청년 희망이음 일자리를 지원한다.

신종원 희망일자리 지원 대상 연령은

59세에서 69세로 확대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주택 설치비의 20%를 신규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서는 출산과 양육 지원금이 대폭 상향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둘째아이는 50만원씩 인상되고, 셋째아이는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넷째아이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지원액이 대폭 상향되며 전액 군비로 지급된다.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돼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범위 내에서 2년간 모든 진료비와 재료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수산 분야는 각종 보조금

지원율을 확대해 농어업인의 가계 부담을 경감한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전액 보조(20만원 범위), 친환경 해충방제기 구입비 50% 지원(신규)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인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을 기존 9개 품목에서 오이, 토마토 등을 포함한 14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 신청 시기는 10~11월에서 7~8월로, 지급 시기는 12월~익년 1월에서 10~11월로 변경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은 사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액을 10% 상향한다. 관광·문화·교육 분야는 스포츠 강자이용권 지원액을 월 8만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에게 1인당 14만원씩 여행활동비를 지원한다.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초·중·고 졸업앨범비 6만원, 중·고등학생 인

터넷 교육방송 수강료 연간 5만원,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50%를 신규 지원한다.

교통·건설·환경 분야에서는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액이 가구당 180만원으로 인상되고 일반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는 지원금액이 50% 하향 조정된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세대별 1,000원 정액부과에서 음식물쓰레기 1kg당 21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한, 관내 공유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해 최초 2시간과 오후 8시~오전 8시 사이에는 무료 개방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밀착형 시책과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해양관광거점도시 건설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2022 새해설계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관광 도시 건설과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완전한 일상 회복과 함께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한 걸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올해는 그동안 다진 기반 위에 구체적인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 군수는 올해 7대 군정 운영 방향으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업안착으로 미래 완도 성장 동력 마련 ▲농수축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광역별 특화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 도시 건설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미래 지향적인 지역 개발 ▲더불어 사는 보편적 복지 행정 실현 ▲교육과 체육 시설 확충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안착시켜 미래 완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은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와 더불어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등을 올해 모두 준공·운영할 계획이다.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와 해조류 바이오 활성 소재 인증 생산 시설, 해조류 기능성 소재 유효성 평가 센터 건립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과 약산 해안 치유의 숲 본격 운영, 여서도와 금당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고금 이충무공 역사 공원 사업 등을 추진해 권역별 특화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편적 복지 행정 실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농수축산업 성장을 위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확대, 어촌뉴딜300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2단계 구간,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 사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완도=최규욱 기자

완도-완도군의회

인사권 독립 MOU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최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인사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사 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신규 채용 시험 완도군 위탁 ▲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 양 기관 협의 운영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협의 운영 등이다.

아울러 기관별 독립·분리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며 “의회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강진군 군동면 (주)도두맘 직원들이 오는 설 명절 작두콩차 판매를 위해 작두콩 커팅 작업에 분주하다.

/강진군 제공

“강진 작두콩차로 건강 선물하세요”

(주)도두맘, 설 선물 제작 분주

강진군 군동면 (주)도두맘이 오는 설 명절 작두콩차 선물 판매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6년 전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강진 풍광에 이끌려 군동면에 귀농한 농업회사법인 (주)도두맘 홍여신 대표는 작두콩차를

연구·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인증 기관으로부터 무농약 인증과 GAP 인증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안정성을 입증받으면서 작두콩차를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전남농기원 품평회에서 우수 농가로 선정돼 중국 최대 쇼핑몰인 알리바바에 입점해 2019년 2만달러를 달성하고 동시에 미국 아마존 전남 명

품 브랜드관에 입점 후 2020년 3만달러, 2021년에는 유럽 아마존에 입점 3,000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작두콩은 비염에 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졌으며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해 호흡기 질환, 면역력 강화 등 겨울 계절성 질환 예방에 뛰어나다.

작두콩차는 40g 6,000원, 80g 1만원, 작두콩차 티백 6,000원, 작두콩차 선물세트는 3만8,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영암, 4차 재난생활비 1인당 20만원 준다

영암군은 코로나19 재확산 극복을 위해 전체 군민에게 앞선 1~3차에 이어 설 명절 전 ‘4차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영암군은 전액 군비로 본예산에 110억원을 반영, 오는 11일부터 2월 11일까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친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4

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이며, 재난생활비는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재난생활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지역소상공인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목포 용해동, 자립생활관에 장학금 지원

목포시 용해동행정복지센터는 새해를 맞아 목포자립생활관에 장학금 15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매년 성금을 기탁하는 2명의 통장과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인간지사(지사장 한화진)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형편상 자립생활관에서 지내는 학생들을 위해 활용됐다.

용해동은 이와 함께 금호장례식장

(대표 이상진)이 기부한 마스크 4,000매도 함께 전달했다.

이수형 관장은 “자립을 위해 홀로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이웃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줘 감사하다”며 “반듯한 청년들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무안 컨트리클럽, 성금 1억원 기탁

무안군은 최근 청계면에 소재한 무안 컨트리클럽에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새달라며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무안 컨트리클럽은 지난해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사회공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최재훈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

도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기탁받은 후원금을 전담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진도 조도면, 배추 600포기 기부

진도군 조도면 공직자들이 직접 심고 가꾼 친환경 배추 600포기를 지역주민들에게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5일 조도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취약 계층에게 김치를 제공하기 위해 유흥지에 배추를 재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김치를 담그지 않고 겉절이, 찜, 국거리 등의 용도로 어린이집과 15개 마을 경로당 등에 전달했다.

마을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심고 가꾼 사랑의 배추를 기부해 연초부터 조도면에 훈훈한 나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고마워했다.

진도군 조도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정성으로 심고 가꾼 배추를 드시면서 주민들이 풍성하고 맛있는 식탁을 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